

# “향약, 누정·원림 자료 세계유산 추진”

# 봄으로 가는 길 ‘국악관현악의 정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7일 공연마루...해돋달·사도 OST 등

취임 한달 흥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호남 서화가 자료 기초조사 진행 고문서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호남학TV 활용 사이버 강좌 계획 개방형통합수장고 건립 시급”

“호남의 공동체 정신이 집약된 향약과 동계 및 누정·원림 관련 자료를 발굴 조사해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임 전담팀 원장 시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예향’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남 서화가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흥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이 1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에 대해 호남진흥원 설립 직후부터 진행해온 고문헌 수집 및 보전, 그리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소감에 대해 “주위 분들이 도와주시고 임직원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줘 남달라요. ‘이무렵’에 가족처럼 즐겁고 바빠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16년째 지리산 아래 구례 화엄사에서 살다가 대도시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소 긴장되고 낯설기도 했다”며 “선대의 고향은 나주이지만 저는 광주 변두리인 포촌사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에 광주에서 적응하는 것은 별 문제 없었다”고 언급했다.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로, 노사학연구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그는 호남의병 역사를 재정의한 사학자다. 구한말 의병 투쟁사 그 가운데서도 활발한 투쟁을 벌였음에도 소홀히 취급됐던 호남지역 의병 역사를 재정립하고 민초 의병들을 복원해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30여 년에 걸친 의병 연구를 매개로 한말 의병사에서 호남 의병이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학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호남의병을 위시한 의향은 호남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흥 원장은 “호남의 정체성을 연구 진흥하는 중추기관인 호남진흥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 같다”며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부담도 매우 크다”고 말해, 그가 느끼는 중책의 무게가 얼핏 가늠이 되기도 했다.

호남의병을 연구하게 된 것은 사범대학(전남대 역사교육과)을 졸업하고 어느 중학교 역사 교사로 있을 때 보성의 전설적인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을 알게 되면서였다. 대학원에서 한말 호남의병을

연구하고 이후 순천대 사학과에 재직하면서 근현대 호남지역사를 꾸준히 연구했다.

현재 호남진흥원은 호남문헌 국역자료를 비롯해 고문서 등 주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출판한 대부분의 책들도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의 취임과 맞물려 노사 기정진 중가에서 친필 유묵 등 3000여점의 자료를 기탁해 화제가 됐다. 호남진흥원이 출범한 지 몇 년 안 된 시기에 종가와 문중에서 귀중한 고문헌들을 많이 기탁해 예상보다 많은 분량을 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장고가 부족하고 DB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엇보다 DB 전문가도 확보하지 못해 한문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그 일을 맡아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럼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 소장 자료의 약 30%정도(약 2만4000건)를 DB로 구축해 공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죠.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소장자료뿐 아니라 호남학 관련 주요 고문헌 자료를 DB화 해 ‘호남학아카이브’로서 우뚝 서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흥 원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아직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교육기관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호남학TV’ 등을 활용해 ‘고문서 초서’, ‘호남의 인물’ 등과 같은 사이버 강좌를 개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전문적인 학술대회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인문 강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연구자뿐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청사의 부지 확보와 신속한 건립, 그리고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충원을 들었다.

“호남진흥원의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광주 시에서 개방형통합수장고를 지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속히 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원하는 중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해를 품은 달이다. 왕은 해라 하고, 왕비는 곧 달이라 한다. 이 봄잠은 하얀 달이 붉은 해를 품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 내 이것을 해를 품은 달이라 이름 붙였다.”

김수현, 한가인, 정일우 등이 출연해 2012년 당시 시청률 42.2%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속 명대사다. 배우들의 열연에 빛났지만 생황, 피리 등 국악 관현악기들로 울려 퍼지는 OST도 흥행에 가세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4 광주상설공연의 일환으로 ‘해를 품은 달’을 오는 17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치평동 1163-2)에서 선보인다. ‘해를 품은 달’ OST부터 24인조 관현악, 궁중무용, 장새납협주곡 등 국악관현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난다.

붉은 황혼과 불빛, 달집태우기 등의 배경과 어울리는 관현악협주곡 ‘죽제’가 막을 올린다. 이어 ‘아름다운인생Ⅱ’는 신디 스트링과 피리 솔로로 시작해 웅장한 관현악 협주곡 마무리하는 작품

이다. 궁중무용 ‘춘앵전’도 볼 수 있다. 무용수들의 춤사위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테마와 맞게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을 그린 일월오봉도와 조화를 이룬다.

생황과 피리를 위한 ‘사도&해를 품은 달 O.S.T’는 메인 공연이다. 생황과 피리, 대금, 대아쟁을 비롯해 신디, 타악 등으로 드라마의 감동을 재연한다.

이외에도 장새납(개량 민족목관악기) 협주곡 ‘넬라판타지아, 열풍’, 노래곡 ‘인연’, ‘난감하네’, ‘시리리실근’도 들을 수 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영선 흥보담당자는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 해 동안 다채로운 국악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번 공연을 비롯해 앞으로도 광주상설공연을 통해 신명 나면서도 품격 있는 국악 공연을 상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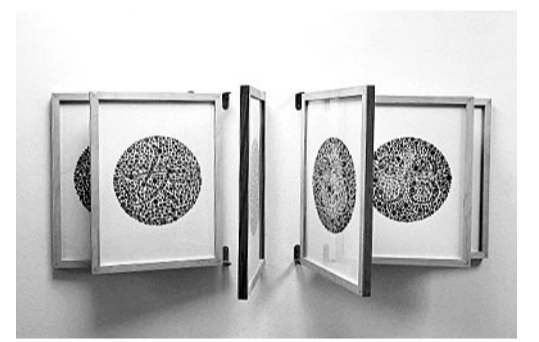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래·재단)이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 증진과 사회적 의제 발굴을 위해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는 3월 12일까지 시각예술 전 분야(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의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주제로 이메일 접수 받는다. 전시는 오는 4월부터 2025년 2월(예정)까지 진행해야 하며 성평등, 여성주의, 가족 관련 기획은 우대한다.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면 지원 가능하며, 총 3팀을 선정해 1500만 원 상당의 창·제작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허스토리상(대상)에 600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을 지급하며 전시 진행 중 1회 이상 연계 프로그램을 필수 진행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재단 내 여성전시관 HERSTORY 기획전시실의 무상 지원을 비롯해 온라인 전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진행된 제6회 공모에서는 여성예술인 3



‘추천덕목&권장태도’

인(김소진, 이소영, 최희정)이 협업해 ‘사물의 변주: 마음에 일으키는 미세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김경래 대표이사는 “미술 분야의 연구자 및 지역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예술적 통찰을 ‘전시’를 통해 발굴하고자 한다”며 “성평등,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창작 전시가 동시대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전망까지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고문학동호회 ‘光高문학’ 12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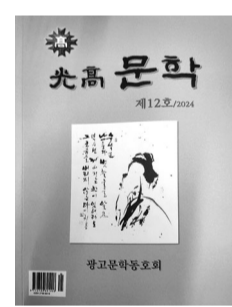
광고문학동호회가 ‘光高문학’ (제12호)를 펴냈다.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광고문학회는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만큼 지역 문학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문집에는 시, 시조, 동화,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은사님 작품에는 송규호 수필 ‘비 새는 밤’을 비롯해 이내무 수필 ‘나무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오명규 시 ‘피운 배새’, 김재창의 동화 ‘할머니의 반딧불’, 최승권 시 ‘화룡점시畫龍點筆’ 등이 실렸

다. 동문 문인 귀금 작품에는 김계운 시 ‘의사 1’, 이지호 시조 ‘선운사 꽃무릎 앞에서’, 오덕렬 시 ‘시의 히말라야산맥이야 1’, 나종영 시 ‘무덤으로 가는 길’, 김한 시 ‘광주의 별이 되다’, 문순태 평론 ‘5·18 소설, 내일의 과제’, 정병중 소설 ‘유월의 식칼’, 윤삼현 소설 ‘그 골목길’, 윤소천 수필 ‘노송의 기쁨’, 김영철 수필 ‘나의 곱스크 가는 길’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문집에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광고문학상 백일장 운영 현황이 실려 있어 그동안의 역사를 한



눈에 가능할 수 있다.표지화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치봉 윤영동의 ‘수석’이 장식했다.

광고문학회 출신 문순태 소설가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광고문학회는 지금까지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 중앙문단은 물론 지역 문학을 일구는 데 적잖은 역할을 담당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후배들이 많이 배출돼 미래의 문학을 일궈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